

濟州島 開闢神話의 系統

玄 容 駿*

I. 序 言

필자는 이미 濟州島 文化의 形成論에 관련된 試論들을 약간 편 바 있다. 『躑馬戲考』¹⁾에서는 濟州의 躑馬戲가 東南亞의 海洋文化를 背景으로 한 競漕 民俗의 韓國적 형태라 했고, 『三姓神話研究』²⁾에서는 沖繩·臺灣·南中國· 東南亞 등지의 南方系 神話要素가 흘러 들어와 濟州도에서 새로운 神話로 창출된 것이라 했다. 또한 『濟州島 巫俗研究』³⁾에서는 濟州도 巫俗이 북방의 샤머니즘이 유입되어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고, 남방의 신앙적 요소가 일부 流入·習合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濟州도 文化의 원류를 탐색하는 작업으로서, 북방에서 유입한 文化要素도 있고, 남방에서 전파한 文化요소도 있고, 혹은 양쪽 요소가 習合된 것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濟州도 文化의 形成論은 이와 같이 개개 文化要素의 比較연구를 통한 系統 탐색을 거쳐 그것이 文化複合으로의 형성과정을 탐구하는 데서 이루어진 다. 본고도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濟州도 開闢神話를 대상으로 하여 周邊民族의 類似神話와 比較 검토함으로써 그 연원과 계통을 탐구하고자 시도 하는 것이다.

* 濟州大學校 教授

1) 『延岩 玄平孝博士 回甲紀念論叢』, 螢雪出版社, 1980, pp. 679-698.

2) 『耽羅文化』 제 2 호,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3, pp. 45-93.

3) 『濟州島巫俗研究』, 集文堂, 1986.

II. 濟州島의 開闢神話

『三國遺事』 등 문헌에 개벽신화의 수록이 없으니, 근래까지도 한국에는 개벽신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필자는 이미 제주도의 큰굿 때 초감제에서 노래하는 巫歌에 개벽신화가 구전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개벽신화임을 밝힌 바 있다.⁴⁾ 그것은 초감제 첫머리에 ‘베포도업침’, ‘천지왕본풀이’ 대목에 수심방이 노래하는 부분이다. 그 이야기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太初, 天地가 혼합되어 있었는데, 甲子年 甲子月 甲子日 甲子時에 하늘의 머리가 子方으로 열리고, 乙丑年 乙丑月 乙丑日 乙丑時에 땅의 머리가 丑方으로 열리고, 寅方으로 사람이 태어나 천지는 개벽했다. 그 모습은 천지가 캄캄하여 한 덩어리가 되었던 것이 시루떡의 징처럼 금이 나서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로는 청이슬이 내리고 땅으로는 흑이슬이 솟아나 서로 合水가 되어 만물이 생겨났다.

먼저 별이 생기고 아직 해가 아니 생겼을 때, 天皇달이 목을 들고, 地皇달이 날개를 치고, 人皇달이 꼬리를 치니 먼동이 트고 해가 솟아나 천지가 밝아졌는데, 해와 달이 두 개씩 나타났다. 그래서 낮에는 온 백성이 더워 죽게 되고, 밤에는 추워서 죽게 될 지경이었다.

어느 날, 하늘의 천지왕이 수명장자를 벌주기 위하여 지상에 내려왔다가 총맹부인(혹은 바구왕의 딸이라 하기도 하고,⁵⁾ 바지왕이라 하기도 한다⁶⁾과 동침하고 돌아갔는데, 부인은 대별왕과 소별왕 형제를 낳았다. 성장한 형제가 후에 아버지를 찾아가니, 아버지는 형인 대별왕에게 이승을, 아우인 소별왕에게 저승을 차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육신생 소별왕은 이승이 탐나서 형에게 수수께끼, 꽃가꾸기 등 경쟁을 하여 이기는 자가 이승을 차지하자고 제안하고, 속임수로 이겨서 이승을 차지하게 되었다. 소별왕이 이승엔 오고 보니, 이승엔 해도 들, 달도 둘이 뜨고, 草木 禽獸가 다 말을 하고, 인간의 不和·도둑·간음이 성행하고, 사람 불러 귀신이 대답하고 귀신 불러 사람이 대답하는 판이었다. 할 수 없이 소별왕은 형에게 이 혼란을 바로잡아 주도록 부탁하니, 형은 천근활에 천근살을 가지고 해 하나 달 하나씩을 쏘아 없애고, 松皮가루 닷말 닷되를 뿌려서 禽獸 草木의 말을 못하게 하고,

4) 「제주도 설화와 開闢神話」, 『제주도』 52호, 1971, pp. 44-49.

5) 秦聖猷, 「南國의 巫歌」, 프린트版, 1968, p. 292.

6) 赤松智城·秋葉隆, 『朝鮮巫俗の研究』 上卷, 大阪屋號書店, 1937, p. 369.

귀신과 인간은 저울로 달아서 백근이 넘는 것은 인간으로, 못한 것은 귀신으로 보내어 구별지어 주었다. 그러나, 자잘한 질서는 바로잡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불화·도둑·간음 등 죄악은 오늘도 남아있는 것이다.⁷⁾

이 神話는 全島的인 분포로 어디서나 줄거리는 같은데, 異傳들도 있으니, 複數의 日月이 생긴 이유를 南方國日月宮의 아들 靑衣童子의 앞이마와 뒷이마의 두 눈이 각각 해 둘 달 둘로 되었다 하기도 하고,⁸⁾ 盤固氏의 앞이마와 뒷이마의 두 눈이 각각 해 둘 달 둘이 되었다고 하기도 한다.⁹⁾

이 神話는 얼른 보면 中國文獻神話의 번안처럼 생각될 우려도 없지 않다. 하늘이 甲子年 甲子月 甲子日 甲子時에 子方으로 열렸다 云云 하는 것이라든지, 盤固氏의 눈이 해와 달이 되었다는 異說이 있는 것이라든지, 日月을 쓰는 이야기가 羿의 射陽神話와 유사하다든지, 신과 인간의 분별 이야기가 重黎神話와 통하는 바 있다든지 하는 것이 그러한 우려를 낳게 한다. 말할 것도 없이 甲子 乙丑 등의 干支나 盤固의 이름 등은 中國文獻에서의 借用이겠지만, 위에 든 여러 話素들이 中國文獻神話의 그것과 本旨가 같은 것이 아니다.¹⁰⁾ 따라서 이 神話는 中國文獻의 영향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변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中國文獻神話 수입 이후의 조작이 아니라 본래 인접민족과의 문화관계에 기인하여 형성된 본래적인 우리의 신화라 해야 한다.

이 유형의 神話는 咸鏡南道와 서울에서도 채집이 되어 있다. 咸南엿 것은 孫晉泰가 創世歌라는 이름으로,¹¹⁾ 任哲宰가 ‘센긋’으로 채집하여 있는데,¹²⁾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禽獸草木이 말을 하고 말에 뿔이 돋고 하던 옛날, 하늘이 子方으로 열리고 땅이 丑方으로 열리고 사람이 寅方으로 생겨서 개벽하였다. 그 후, 석가님이 탄생하여

7) 北濟州郡 朝天面 朝天里 男巫 鄭周柄 唱, 玄容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1980, pp.

8) 赤松智城·秋葉隆, 硯齋, p. 369.

9) 秦聖麒, 硯齋, p. 872.

10) 玄容駿, 『日本神話と韓國神話』, 大林太良篇 『日本神話の比較研究』, 法政大學出版局, 1974, pp. 70-75에서 그 本旨가 다름을 論及했다.

11) 孫晉泰, 『朝鮮神歌遺篇』 郷土研究社, 東京, 1930, pp. 1-13.

12) 任哲宰, 『關北地方巫歌(追加)』 文教部, 1966, pp. 1-18.

미륵의 세상을 빼앗으려 하여 갖가지 경쟁을 걸어 속임수로 이기고 이 세상을 차지 하는데, 이 세상은 해도 둘 달도 둘이 뜨고, 惡疾·역적·巫女 등이 끊임없이 나왔다. 석가님은 西天國에 가서 간청하니, 부처님이 해 하나 달 하나씩을 떼어 주었다.

秋葉이 채록한 서울의 巫歌 ‘시루말’¹³⁾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要旨는 다음과 같다.

떡갈나무에 떡이 나고 싸리나무에 쌀이 나고 飛禽走獸가 말을 하던 옛날, 天下宮堂七星이 地下宮에 내려와 梅花夫人과 동침하여 선문이 후문이 형제를 낳았다. 성장하여 형은 大韓國을, 아우는 小韓國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때 해도 둘, 달도 둘이 났으므로 鐵弓으로 해 하나 달 하나씩을 쏘아 없앴다.

이로 보아 세 神話가 같은 유형의 變形돌림이 이해되며 제주도의 것이 가장 原形的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개벽신화의 내용을 검토하여 신화적 성격을 보기로 하자.

첫째, 이 神話는 太初 天地의 혼합에서부터 개벽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 혼합은 天地가 암흑 속에 相接하여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요, 개벽은 그 天地가 시루떡의 징처럼 금이 나 분리됨을 말한다. “하늘로는 청이슬이 내리고 땅으로는 흑이슬이 솟아나 서로 合水되어 만물이 생겨났다”는 말은 天父地母의 관념과 인간의 성행위에 의한 자녀 출생의 원리를 투영한 표현으로서 天父地母가 포옹하여 만물을 낳는다는 표현일 것이다. 그리고 “天皇닭이 목을 들고 地皇닭이 날개를 치고 人皇닭이 꼬리를 치니 먼동이 트고 해가 솟아나 천지가 밝아졌다”는 표현을 수닭이 목을 들고 날개를 치며 울음을 우니 동이 트고 해가 솟아 천지가 개벽되었다는 표현으로서 日常의 아침의 정경을 原初의 아침에 투영시킨 것이다. 이 표현은 천지개벽, 곧 天地의 分離가 닭의 울음을 통한 太陽의 出現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 神話는 天地分離神話다.

둘째는 天地分離 당시 해도 둘, 달도 둘이 뜨는 天體混沌의 상태를 정리했다는 것이다. 해 둘 달 둘의 天體混沌은 백성이 더위와 추위로 못살게 되

13) 赤松·秋葉, 苜蓿, pp.128-132.

는 결과를 낳았고, 대별왕이라는 영웅이 해 하나 달 하나를 활로 쏘아 떨어뜨림으로써 天體의 질서를 바로잡은 것이다. 이 이야기는 바로 射陽神話라 하는 것으로서, 이 射陽神話가 天地分離神話에 결합되어 開闢神話의 한 挿話가 되어 있는 것이다.

세계는 天地分離 이후의 일로서 禽獸 草木의 言語, 神人의 無分別, 人間의 社會惡 등 人文事象의 無秩序를 정리했다는 이야기다. 禽獸 草木은 말을 못하게 하여 인간만이 말을 하게 하고, 귀신과 인간은 그 무게로써 구분지우고 하여 질서를 잡았지만, 인간의 사회악은 정리하지 않아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것인데, 이 挿話는 개벽 이후 人文事象의 이야기이므로 개벽신화를 다루는 때는 제외해도 좋을 사항이다.

그리고 보면 제주도의 개벽신화는 天地分離神話와 射陽神話의 結合으로 이루어져 있음이 특징이고, 天地分離의 원인은 닭의 울음으로 인한 태양의 출현에 있다는 것이며, 射陽神話 요소는 해와 달 두 개씩의 출현과 영웅이 그 하나씩을 射落시킨다는 데 특징이 있다.

이만큼 제주도 개벽신화의 특징이 정리되었으니, 이제는 그 系統을 탐색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 그 탐색은 周邊民族의 神話와의 비교에서 그 特種화소의 유사성을 찾아가는 길이다.

Ⅲ. 開闢神話의 系統

1. 天地分離神話

天地分離神話는 세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신화다. 이 신화의 공통적인 특성은 하늘은 아버지, 땅은 어머니라는 天父地母思想에 기반을 두고, 天父와 地母가 암흑 속에서 포옹하여 만물을 생산하고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天父 地母가 분리, 오늘날의 거리만큼 天地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신화는 <天地의 接合 또는 接近-分離者의 分離行爲-天地分離>라는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神話는 많은 조사 연구가 되어 있다. Bauman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

神話は 古代地中海・古代오리엔트・서아프리카・에치오피아・인도・시베리아의 보글族이나 오스차크族・中國・동남아시아대륙・인도네시아로부터 미크로네시아・폴리네시아 및 멜라네시아의 일부, 그리고 新大陸에서는 멕시코와 그 북부에 인접한 지방에 분포해 있다고 한다. 한국이나 日本이 그 分布圖에 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그는 이 신화가 오리엔트의 古代文明地帶에서 발생하고 그 영향 지역에 전파해 간 것이라고 논하고 있다.¹⁴⁾ 그런가 하면 Schmidt는 동남아시아의 매우 未開한 農耕文化에 그 발생 기원을 구하고 있어,¹⁵⁾ 현재로서는 그 발생지역과 전파경로를 명백히 할 수 없다.

제주도의 天地分離神話의 유입 경로를 찾는 데는 위의 분포 안에서 주변 민족의 신화와 유형별로 비교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天地分離神話의 構造에서 볼 때 유형의 갈림길은 相接 또는 接近되어 있는 天地를 분리시키는 分離者의 행위에 있다 하겠다. 그 分離者의 分離方法에서 보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A 巨人・神人이 밀어 올리는 형
- B 女人의 言動 또는 절구로 쳐 올리는 형
- C 불 또는 太陽에 의해 분리되는 형이 그것이다.

沖繩의 신화에 따르면, 태초, 天地가 매우 접근하여 있어 사람들이 서서 걸어다닐 수가 없었는데, 아만추우라는 神이 단단한 바위 위에 서서 두 팔로 하늘을 받아 일어섰다. 그래서 천지가 멀리 떨어져 서서 걸을 수 있게 되고, 그때의 神의 발자국이 남아 있다고 한다.¹⁶⁾

이 신화는 神人이 밀어 올리는 A型이다. 中國의 三五曆記의 기록에 따르면, 아직 天地가 未分하고 鷄子와 같이 혼돈되어 있을 때, 그 가운데 盤固가 태어났다. 一萬八千歲가 되어 天地開闢하여 淸陽한 氣는 하늘이 되고, 濁陰한 氣는 땅이 되었다. 그 사이의 盤固의 키가 하루 一丈씩 클에 따라

14) 大林太良, 『日本神話の起源』 角川書店, 東京, 1961, p.150.

15) シュミット・ヴイルヘルム, 山田隆治譯, 『母權』 平凡社, 東京, 1962.

16) 大林太良, 『神話學入門』, 中央公論社, 東京, 1966, p.78.

하늘의 높이도 하루 一丈씩 높아지고 땅도 하루 一丈씩 두터워 갔다. 그러기를 一萬八千歲, 그 후 三皇이 났다. 이 아리송한 신화도 盤固라는 神人이 天地 사이에 서서 밀어올리는 型의 天地分離神話로 해석되고 있다.¹⁷⁾ 이들 유형의 신화와 제주도의 것은 그 모티프가 다르다.

필리핀의 바고보族의 전승에 따르면, 태초, 하늘이 땅 위에 매우 가까이 떠 있어 방아를 찧는 데 팔이 걸리는 정도였다. ‘두구리봉’이라는 여인이 하늘을 향해 “더 높이를 올라가라. 쌀을 찧지도 못하는 것을 모르느냐”고 야단치니 하늘이 높이를 올라갔다고 하고,¹⁸⁾ 다른 필리핀의 신화에서는 쌀을 찧는 여인의 질구공이가 하늘에 맞아 높이를 하늘이 올라갔다고 한다.¹⁹⁾ 이들 신화는 B型에 속하는 것으로서 분포가 넓지만, 제주도의 것과는 모티프가 다르다.

제주도의 것은 닭의 울음으로 인한 태양의 출현으로 天地가 분리되니, C型에 속한다.

日本「古事記」의 이자나기·이자나미神話에 보면 男神 이자나기와 女神 이자나미가 결혼하여 日本列島の 여러 섬과 많은 神을 낳은 후, 火神을 낳다가 陰部에 화상을 입고 죽어 두 神이 이별한다. 沼澤의 해석에 따르면 이神話는 天地分離神話다. 이자나기는 天父요, 이자나미는 地母이며 火神을 낳을 때 화상으로 이별하는 것은 불을 원인으로 한 天地分離를 說話化한 것이라는 것이다.²⁰⁾ 불은 太陽과 통하니, 이 日本의 神話는 제주의 것과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유사한 것은 臺灣의 아미族의 神話에서 발견된다. 새를 울려서 天地를 분리시켰다는 다음과 같은 전승이다.

太古, 스라와 나카오라는 男女 두 神의 자손이 地上에 번창했다. 어느 때 아이들이 갑자기 죽음으로 그 원인을 짐쳐 보았더니 하늘이 땅에 너무 접근해 있기 때

17) 森三樹三郎, 『中國古代神話』, 清水弘文堂書房, 東京, 1969, pp.162-163.

18) 大林太良, 1966, 畧集, p.78.

19) 沼澤喜市, 「天地分るる神話の文化史的 背景」, 『現代のエスプリ-神話』, 至文堂, 東京, 1967, p.32.

20) 同, 「南方系文化としての神話」『國文學解釋と鑑賞』36卷 11號, 東京, p.16.

문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鳥類를 불러 모아서 하늘을 위로 올리도록 했다. 竹鷄와 매를 시켜서 해 보았으나 실패하고, '다다츄'라는 새가 날개와 꼬리를 활활히 치면서 헛것 우니 하늘이 점차 위로 올라가 지금의 높이가 되어 잘살게 되었다.²¹⁾

또 貴州省의 花苗族의 神話에는 숨은 태양을 닭 울음 소리로 유인해 낸 이야기가 있다.

해 10개가 일시에 떠올라 몹시 덥고 五穀 채소가 전부 말라 죽어가므로 國王은 弓手를 불러 해를 쏘아 떨어뜨리도록 했다. 弓手が 해 아홉을 쏘아 떨어뜨리자, 해 하나는 산 뒤로 도망쳐 암흑세계가 된다. 소리 큰 동물을 시켜 해를 불러내기로 하고, 사자·황소를 시켜 불러 보았지만 실패, 최후에 수탉을 시켜 불렀더니, 해가 동쪽의 산꼭대기로 얼굴을 내밀고, 세계는 광명으로 바뀌었다.²²⁾

위의 두 이야기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닭의 울음소리가 태양을 유인해 내고, 그 태양이 天地를 분리시킨다는 一連의 연결되는 觀想이 된다. 이것은 제주도 개벽 신화에서 닭의 울음소리로 인한 태양의 출현으로 天地가 분리했다는 것과 통한다.

이런 점으로 보아 제주도 개벽신화의 天地分離神話 요소는 南中國·臺灣 쪽과 親緣關係가 있음을 우선 인정하게 된다. 이 신화 요소가 威南까지 번지고 또 日本까지 건너가서 아마테라스(天照大神)의 아미노이와(天の岩屋)神話나 불을 계기로 한 天地分離神話로 변형되어 남게 되었으리라 본다.

2. 射陽神話

射陽神話도 널리 분포되어 있는 神話다. 그 공통적인 중요 모티프는 多數 太陽의 출현으로 더워 못살게 되자 활의 名手が 쏘아 떨어뜨려 하나만을 남긴다는 것이다. 岡正雄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신화는 “대체로 인도네시아族·타이·支那族·티어키·몽고族·日本·西部인디안族에 분포되어 있다”²³⁾고

21) 佐山顯吉·大西吉壽, 『生蕃傳説集』, 杉田重藏書店, 臺北, 1923, pp.8-9.

22) 松本信廣, 「神話傳説」, 『現代のエスプリ-神話』, 至文堂, 東京, 1967, pp.33-34.

23) 岡正雄, 「太陽を射る話」, 『現代のエスプリ-神話』, 至文堂, 東京, 1967, pp.71-72.

한다. 한국이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제의 분포 민족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어떻게든, 周邊民族의 것들을 보면 지역과 민족에 따라 그 특징이 조금씩 다르다.

中國 : 堯임금 때에 해 열이 並出하여 草木이 말라 죽어갔다. 堯임금이 羿에게 명하여 쏘게 하니, 해 아홉이 명증하여 해 속의 까마귀가 모두 죽어 떨어졌다. 그래서 해 하나만 남았다.²⁴⁾

日本 : 垂仁天皇 때, 해 아홉개가 나타났다. 天文博士는 이를 점쳐서 북쪽끝의 해가 진짜이고, 남쪽에 벌려 있는 것은 까마귀가 든갑한 것이라고 棄上했다. 射手 8인이 명을 받아 사다리를 걸쳐 올라가서 8개를 쏘아 떨어뜨리니, 모두 까마귀였다.²⁵⁾

蒙古族 : 射手 '엘레 멜겐'은 해와 달을 쏘려고 했다. 어떤 사람이 七曜星 중의 하나를 훔쳐 숨기고 射手에게 七曜星 중의 하나를 쏘아 맞혀 보라고 했다. 만일 실수하여 못 맞히면 해와 달을 쏘아 맞힐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射手는 잘 쏘아 맞혔지만, 그 사람은 그 순간 자기가 숨겨 두었던 것으로 제빨리 바꾸어 놓아 못맞혔다고 했다. 射手는 매우 부끄러워 하여 마르모트가 되어 버렸다.²⁶⁾

臺灣 바이완族 : 옛날, 하늘이 낮고 해가 두 개 떠 있어 잠잘 수가 없었다. 어느 때, 도카니본家の 사람이 조를 쟁고 있었는데, 절구공이가 하늘에 맞아 해 하나가 떨어졌다. 그래서 하늘도 높게 올라가고 잠도 잘 수 있게 되었다.

臺灣 사翟族 : 太古에 해와 달이 둘씩 있어 1년은 낮, 1년은 밤이 교대되고 몹시 더워 못살게 되었다. 한 청년과 소년이 원정에 나섰다. 도중 조와 朱藥을 심으며 갔는데 청년은 죽고 소년이 노인이 되어 해 하나 달 하나를 쏘았다. 그래서 해와 달이 하나씩 되어 주야 분별이 생겼다.²⁷⁾

보르네오 두순族 : 옛날, 하늘이 매우 낮아서 사람의 키만큼 땅에 떨어져 있었다. 그 때 부부가 있었는데, 임신한 부인이 친정에 가는 길에 뜨거운 태양열을 받아 매우 불쾌했다. 남편이 태양열을 쏘러 나섰다. 이 때는 태양이 7개 있었는데, 아침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자 6개를 쏘고 하나를 남겼다. 그제야 낮았던 하늘이 높이 올라가서 태양열이 알맞게 되었다.²⁸⁾

紙面 관계로 많은 例話를 들지 못함이 아쉽지만, 위에 든 이야기만 보아

24) 森三樹三郎, 1969, 硯齋, pp.89-90.

25) 中山太郎, 「太陽を射落す話」, 『民族點描』, 人文書院, 京都, 1938, pp.45-46.

26) 岡正雄, 1967, 硯齋, p.69.

27) 같은 책, pp.65-66.

28) 佐山融吉 他, 1923, 硯齋, pp.501-502.

29) 岡正雄, 1967, 硯齋, p.67.

도 대략 그 지역적 특성이 나타난다.

첫째, 中國의 것은 태양의 수가 10개라는 것과 그 태양이 까마귀와 관련 지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고,

둘째, 日本의 것은 中國의 것과 비슷하며,

셋째, 몽고·퉁구스族 등의 것은 射手가 마르모트로 變身한다는 특징이 보이며,

넷째, 臺灣·보르네오 등지의 것은 2개의 태양 또는 2개씩의 해와 달 중 하나씩을 원정에 의해서 쏘아 떨어뜨린다는 점과 이 射陽神話가 天地分離神話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면 제주도의 이야기는 어떤 특징이 있었던가? 해와 달이 둘씩 출현하고 射手가 그 하나씩을 쏘아 떨어뜨리는 점과 이 射陽神話가 天地分離神話의 한 挿話로 결합되어 있는 점이였다. 이 점을 대조해 보면 제주도의 것은 臺灣·보르네오 등지 일대의 것과 극히 유사함을 알게 된다. 결국 북방의 몽고나 터키 쪽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南中國 沿岸 臺灣·東南亞 쪽과 親緣性이 인정되는 것이다.

IV. 結 語

이상, 제주도 개벽신화의 특징 모티프를 정리하고, 그것을 周邊民族의 것과 비교하여 그 유사성을 탐색해 보았다.

제주도 개벽신화의 특징은 天地分離神話와 射陽神話의 결합에 있고, 그 天地分離의 원인은 닭의 울음으로 인한 태양의 출현에 있으며, 射陽神話의 요소는 해와 달 두 개씩의 출현과 그 하나씩을 쏘아 떨어뜨리는 데에 그 특징이 있었다. 이 중, 天地分離의 특징 모티프는 南中國·臺灣 일대의 것과 親緣性이 발견되었고, 射陽神話의 특징 모티프는 南中國 沿岸 臺灣·동남아 쪽과 연결됨을 보았다. 이를 종합하면 제주도의 개벽신화는 북방지역의 계통이 아니라, 남쪽에서 流入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南中國·東支那海 일대의 文化圈域에서 흘러 들어와 독자적인 개벽신

화로 창출하게 된 것이라 본다. 이 傳播에는 쿠로시오(黑潮)의 조류의 영향을 생각할 수 있겠다.

이로 미루어 보아 제주도 文化形成에 남쪽에서의 전파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